

新車가 달려온다

자동차 시장에 '신차 대전'이 시작됐다.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가 잇달아 신차를 출시하면서 하반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데다, 수입차업체도 프리미엄·대중적 모델을 골고루 내놓으면서 '영토 확장'에 뛰어들었다.

◇현대·기아차, 투싼, 쏘나타부터 쏘울과 'VG'까지=현대차는 최근 소형 스포츠 유트리티 차량(SUV) '투싼'의 후속모델 '투싼 ix'를 출시했다. 디젤 모델의 경우 자동변속기를 기준으로 15.4km/l로 경제성도 확보했고 보증기간도 기존 3년 6만km에서 5년 10만km로 확대했다. 가격은 디젤 모델 2WD의 경우 2천135만~2천700만원, 가솔린 모델은 1천870만~2천400만원(자동변속기 기준)이다.

현대차가 오는 9일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YF' 투나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페형 디자인에,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

기아차도 지난 1일 실내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호 사양을 다양화한 2010년형 쏘울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 말 준대형 세단 'VG'를 내놓고 오피러스와 로체 사이의 중대형 시장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VG는 헤드램프, 안개등, 이웃사이드미러 랙프 등 각종 랙프를 포인트로 고급스러우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특징.

GM대우가 이달부터 본격 판매하는 글로벌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사전 계약 시작(8월19일) 이후 1주일만에 5천 대를 넘어서는 등 인기다. 영화 트랜스포머 : 괴자의 습격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모델로, 국내 동급 차종 가운데 차체와 실내 공간이 가장 크다.

◇수입차, 대중적, 프리미엄 메뉴 풍성=을 상반기 광주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브랜드인 폭스바겐 코리아는 오는 21일 6세대 '골프' 공개 및 시판으로 영역 넓히기에 나선다. 올 상반기 제작과 없어 내다 팔 차량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6세대 골프의 경우 2.0리터급 디젤 엔진에 자동변속기 모델 연비가 17.9km/l다. 총 7개의 에어백, 후진 일렬주차를 도와주는 파크 어시스트 기능 등도 들어있다. 판매가격은 3,390만원.

아우디 코리아도 하반기 'R8 5.2 FSI 콰트로'를 출시한다. 콰트로는 고성능 미드십 스포츠 카 R8에 5천200cc의 V10 가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올해로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이 끝나는 만큼 신차 효과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상차립도 풍성하다.

쏘울·투싼·VG·마티즈 등 새 모델 잇단 출시

수입차 업체도 대중적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솔린 직분사 FS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25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 7월 중소형 SUV인 뉴 GLK 클래스, 지난달 12일 럭셔리 세단인 '더 뉴 세너레이션 S 클래스(The new generation S-Class)'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달 말 7년 만에 풀 체인지된 '뉴 E클래스'와 쿠페형을 선보였다. 뉴 GLK는 7단 자동변속기에 '블루 이피션시(BlueEFFICIENCY)'라는 연비 향상 기술이 동원된다. 연비 14.2km/l. 뉴E클래스는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방지 등 20가지 이상의 신기술이 접목됐다. 가격은 GLK 기본형은 5천970만원, 고급형은 6천690만원, 뉴E클래스는 6천590만~1억3천990만원까지, 쿠페는 7천990만원이다.

BMW도 올해 말 대형 세단 '뉴 BMW 760Li', 스포츠 액티비티 차량(SAV) 'X5 M'·'X6M'을 출시할 예정이고 미니 브랜드에서도 스페셜 모델 3종을 선보인다.

760Li는 세계 최초의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고 V12기통 엔진에 제로백(시속 0→100

km 도달시간)은 4.6초다. 스포츠 액티비티 차량(SAV) 'X5M'·'X6M'도 V8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단 4.7초 만에 도달한다.

미니 브랜드도 올해 브랜드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모델(미니 50쿠퍼 S JCW, 미니 50 메이페어·캡든) 3종을 선보인다. 쿠퍼는 4기통 트윈 스크루 터보 차저를 갖춘 1.6ℓ 가솔린 엔진을 달았고 가격은 4620만원. 미니50 메이페어는 측면 지시등에 메이페어 로고가 달렸다. 미니 50 캡든은 차량 정보와 주행, 환경 조건 등을 차량 자체에서 나오는 신호

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차세대 차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미션 컨트롤'이 장착됐다.

/김지기자 dok2000



기아차 쏘울
2010년형 스포츠 데칼



국산-수입차

판촉전 '치열'

국내 자동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들의 판촉전도 치열하다.

◇국산차=현대차는 이달 아반떼와 i30·i30cw·그랜저 등을 구입하면 지난달보다 20만원 더 깎아주고 쏘나타 트랜스폼을 구입하면 10만원 더 할인해준다.

기아차도 중형세단 모델 이노베이션의 할인 금액을 전달보다 20만 원 늘린 120만원으로 정하고 쏘렌토R도 20만원 깎아준다. 스포티지도 지난달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후차 보유(2003년 9월말 이전 최초 등록) 고객에게 차종별 20~50만원을, 다자녀 가구에 10~30만원, 기아차 재구매 고객에게 10~20만원을 할인해 준다. 반면, 쏘울은 지난달보다 할인 혜택이 10만원 줄었다.

르노삼성은 SM7과 SM5 구매 시 금리를 기존 연 4.9%에서 3.9%로 낮췄다.

할인 혜택·무이자 할부에 골프 멤버십 카드까지

다. 또 할부 원금에 따라 최장 36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한 '마이 웨이' 판매 조건도 추가했다. 1999년 이전 등록 차량 보유 고객의 할인 범위를 최대 50만원으로 늘렸다.

GM대우는 토스카, 윈스톰, 윈스톰 맥스 구매시 10만원 내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 할부 프로그램을 내놨다. 10만원을 먼저 내고 첫 1년간은 5%의 할부이율로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기간은 8.75% 또는 8.9%의 할부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수 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제외한 2009년형 마티즈, 젠트라, 라세티 프리미어, 토스카, 윈스톰, 윈스톰 맥스, 베리타스 구입시 10만~300만원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쌍용차는 9월 구매고객에게 차종별로 '렉스턴, 체어맨 W'가 150만원, '로디우스·액티언·체어맨 H·카이런·액티언스포츠'는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합격 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 www.hanbigoosi.co.kr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교정학특재 핵심정리 및 문제풀이 개강 9월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교정학특재	교정학·형사소송법
핵심정리 및 문제풀이	개강 9월

한빛한빛고시학원

대학편입 상위권 대학을 잡아라

대학편입 대학에 대한 개강

대학편입 대학 입시 전략과 대학별 특성

대학편입 대학 입시 전략과 대학별 특성